

# 무각사 봉사단 지역민에 훈훈한 보시행

## 2년째 소록도 자원봉사도 펼쳐

“외지인들이 이곳에 오기 쉽지 않는데 매년 정성스러운 음식을 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덤집된 음식 대접을 받으니 힘이 납니다.”

공양을 대접 받은 이들은 소록도 주민들이고, 대접한 사람들은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원들이다.

이처럼 평생 외부인과 격리돼 살아온 외딴섬 소록도 주민들에게 불교계의 온정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자비봉사단 20여 명은 7월 17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인 마을주민 700명에게 삼계탕을 공양했다.

이날 봉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을 비롯해 무각사 총무 범봉 스님 등 자비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해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공양 봉사를 했다.

자비봉사단의 소록도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 시작해, 매년 7월마다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보양 음식을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마을주민을 위한 김장도 직접 담궈주며 동지팔죽도 대접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과 방문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기도 해 주민들은 불교계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자원봉사를 함께 한 무상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어 기뻐다”며 “보시 정신은 부처님

한센병 환자인 마을주민에게 두번째 삼계탕 700인분 보시

2008년 결성돼 군법당 자원봉사 지역 어르신 위한 봉사 펼쳐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인 덕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범봉 스님은 “소록도에서 지난해 자비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불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다른 이웃 종교처럼 우리 불교계 봉사 단체들도 소록도에 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자비심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를 밝히기가 부끄럽다는 한 자비봉사단원은 “이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이 7월 17일 소록도를 방문해 마을주민 7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날 봉사를 위해 봉사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전날 미리 인삼, 녹두 등 재료를 준비하고, 당일 광주 무각사에서 새벽기도 후 4시 30분에 출발해 이곳에 왔다”며 “환자와 주민들이 공양을 하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절로 생겨났다”고 즐거워 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김영호씨는 “환자들이 대부분 연로해서 더운 여름을 지내기 힘들어 한다. 이렇게 불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지난 2008년 3월 결성돼 소록도 봉사 활동외에도 매주 토요일 무각사 주차장에서 열리는 재활용장터 보물섬 개최, 장성 군부대 법당 무각사 봉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식 대접과 생필품 전달, 보름 한마당축제, 음악회 등도 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일자리 제공이 부처님 자비실천”

전북 유일 불교 사회적 기업 운영

(유)비사벌 코리아 김광원 대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불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김광원 대표(사진)는 자신의 성공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사벌 코리아는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고 첫발을 내딛었다.

김 대표 “오랫동안 절집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일시적 도움보다는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현재 회사에는 11명의 직원 중 6명이 장애인이며, 김 대표는 장기실직자와 고령자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다. 김 대표는 “아직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회사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수익금 일정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만 1400만원에 달하는 가구와 후원금을 정심원이나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등에 기부했다.

또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가구수리,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용가구 전달과 장학금 지급에도 나서고 있다.

군 제대 후 김제 금산사에 입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김 대표는 그동안 한눈팔지 않고 20년 가까이 불교를 위한 일을 떠나본 적이 없다. 현재도 완주 송광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템플스테이,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여름 수련회등의 기획 관리업무도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사)송광의 이사회와 백산장학재단 사무국장을 하며 1인 다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9월경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대표 “비사벌 코리아는 가구를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위해 가구를 파는 기업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착한소비, 나눔과 순환이라는 회사의 모토 아래 취약계층의 고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지리산 지키고, 여름캠프도 즐기고

## 전북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 지리산 일대에서 여름캠프 진행

전북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단장 오종근)은 지리산 일원에서 7월 21~23일까지 2박3일간 청소년 30명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생명의 지리산, 평화의 순례길에서 여름바람”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순례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도박, 게임 등 중독 예방교육과 우리문화 이해하기, 고민함께 나누기, 진로탐구, 지리산 순례길 걷기, 지리산반 반대운동 생태계 보전운동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직접 느끼고 생명평화적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리산 순례길을 걷는 중간에는 최근 지역현안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지리산 걷기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이 7월 21~23일 지리산 일대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설에정 현장과 용유담을 직접 방문해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명평화 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김수연(이리 남성여고) 학생은 “화를 내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 객관화 하는 방법

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고 “개밭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훼손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실명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섬 포교 활동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다”

## 광주포교사단 7월 22일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이하 광주포교사단)은 지난 7월 22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2012년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포교사단 전반기 분야별 성과에 대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그룹별 토론이 진행됐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전반기는 우리 지역단이 각 범별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3년 전 부터 진행해온 섬 포교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에서는 사찰문화해설팀(팀장 김광수), 군포교팀(팀장 방순량), 교정교회팀(팀장 이종관), 염불봉사팀(팀장 조현욱), 자원봉사팀(팀장 김경영), 홍보 및 사무지원팀(팀장 강막레)이 전반기 활동성과와 사례에 대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네팔 이주노동자 엑스포 나들이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지난 7월 15일 네팔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적 문화축제인 여수 엑스포 참관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세계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센터에서 마련한 차편을 통해 여수에 도착한 후, 한국관, 기업관, 국제관과 아쿠아리움 등 여수엑스포 전시관들을 둘러보았다. 네팔 이주노동자 비스타 씨는 “그동안 여수엑스포를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 참가하지 못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근로자들이 아쿠아리움에 둘러 바다 속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빠져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즐거웠다”며 “이들이 타국 생활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잊고 한국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2012년 동산불교대학 41기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 끝없는 열정 신행·교육·포교의 전문도량 동산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30년 역사와 그 바탕으로 21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토요일(매주 토요일 오후6시) / 목요일(매주 목요일 오후2시) / 통신반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무전장 대중사(본대학 학생) 김상현 교수 김형준 교수 김호규 교수 모 주 스님 박 종 교수 보 각 스님 윤열수 교수 정병조 교수 정 영 스님 종 석 스님 주명철 교수 차차석 교수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활 안 스님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2012년 7월 2일(월) ~ 2012년 8월 11일(토)

입학일시(불교학과) 8월 11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개강

### 9월 개강학과

- 불교 다도 학 과 (3년) \_ 9월 4일(매주-화, 오후 2시) 박희준 교수
- 사찰음악문화학과 (1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2시) 정산 스님
- 불교 미술 학 과 (3년) \_ 9월 6일(매주-목, 오전 10시 30분) 범인 스님
- 불교 한문 학 과 (2년(장규홍선) \_ 9월 6일(매주-목, 오후 7시) 만춘 스님
- 동산의식법패반 (2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3시) 인각 스님
- 동산한글의식반 (2년) \_ 9월 8일(매주-토, 오후 2시) 문중순 법사, 만춘 스님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 02)732-1206-8 전승 02)732-1207

- \* 특전사항 : ①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를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②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중병, 하사관, 장교)는 전액면제교육
- ③ 일반군인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할인함.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내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